

10-18-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예레미아 30:4-7

말씀제목: 야곱의 고난의 때(대 환란)와 교회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지난 육천 년(육 일)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칠천 년이 되어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 마지막 7년 동안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날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들이며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선 먼저 자신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고난의 날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7년 대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한 날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 예레미아는 이날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때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아는 그 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물어 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 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 30:6-7)

선지자 호세아도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낮게 할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호 5:15-6:2)

야곱의 고난의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악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옥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목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임이니,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 하는 것이라. 그 날에는 아이를 뱀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 21:20-24)

이 때에 자신의 신부인 교회는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롬 5:9)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살전 1:10)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9)

그러므로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날에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요일 5:14-15)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뱀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살전 5:3-4)

아멘! 할렐루야!